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사람들마다 자신이 다녀왔던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다. 누구는 여행하던 곳에서 먹었던 맛집의 음식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누구는 해 저물녘의 노을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 또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여행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만의 기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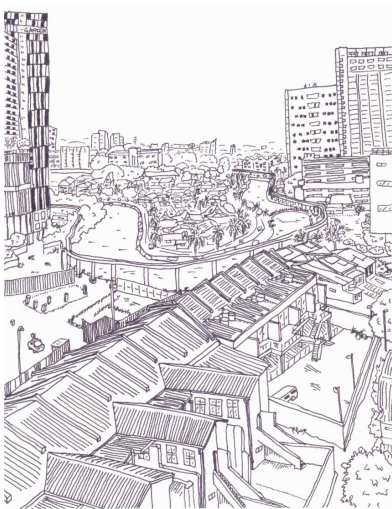
여행 첫째 날, 공항에서 만난 학우들은 말레이시아 항공권만큼이나 낯설기만 하였다. 원래 같은 수업을 듣던 몇 명의 형들 뿐, 이미 저마다 짝지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5일을 같이 해외에 지낼 수 있을까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옆에 함께 탄 형과 7시간 비행 동안 열 마디는 나눠봤으나, 하는 기억이 난다. 그렇게 어색함을 떨치지 못하고 현지에 도착했을 땐 많은 비가 내렸고, 뒤이어 버스를 타고 나서야 내가 말레이시아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동만 했던 몸이기에 다들 말라카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었고, 이날은 한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어서 한 방에서 같이 응원을 했다. 몸에 응크렸던 긴장이 이때 모두에게 풀렸던 시간이었다.

둘째 날에는 평소 가고 싶었던 **말라카 시내**를 꼭 돌아보았다. 전형적인 패키지 관광 느낌이 나면서도, 대학생들로만 꾸러진 여행은 뒷사람 모습을 따라가며 이동해도 자유여행의 느낌이 났다. 거리에는 낮은 층의 건물들이 담장을 두르고 명동처럼 이어져 있었다. 조금만 걸어가면 성당, 불교 사원 등이 주르륵 지나갔다. 그 배경에 맞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종부터 옷, 생김새가 빠르게 달라졌다.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모두가 한데 모여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말라카의 모습은 실감이 나질 않았다. 한국에서는 무교와 기독교 사이만 해도 사이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여긴 인종까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불교 사원을 들어갈 땐 특유의 향 냄새가 가득했고, 몇 걸음 옆으로 움직이면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모습들이 눈앞에서 지나다니니 더 현실감이 없었다. 이마에 빨간 점을 찍은 사람이 히잡을 두른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걸 본다면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히잡을 두른 여성에게 남자가 말을 걸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



<헝훤텡 사원에서>



무더운 여름에 한참 땀을 흘리며 걸었다. 이쯤이면 좀 쉴 만도 생각이 들 때 즈음 가이드 선생님이 **말라카 강을 투어**하는 배를 탄다고 하셨다. 생긴 모습은 안동의 강처럼 생겼는데 볼 것이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이때 보았던 건물들과 벽화는 아직도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역사까지 들었더니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 이해가 잘 됐다. 말레이시아 왕국의 시작이자,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가 됐음에도 무역 항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이곳은 전통과 융합이 적절히 섞인 모습이었다. 저쪽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는 네덜란드 범선이 아직도 묻혀있고, 강 바로 옆의 산책로에는 말라카 전통가옥이 즐비해있다. 몇 백 년 전에 우리가 떠 있는 이 강을 거슬러서 이곳 사람들이 살았다는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뒤죽박죽으로 떠올랐다. 우리가 경복궁에 가서 왕이 걷던 길을 보며 실제 왕들이 걸어 다니는 걸 상상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이런 상상은 여행을 가서야 정말 가끔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가톨릭의 유명한 신부가 묻혀있던 유적지, 그에 얽힌 설화,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네덜란드 광장** 등을 정신없이 헤집다가 어느덧 버스에 올라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했다. 약 2시간 반에 걸쳐 숙소로 도착하니 저녁이었고 일찍 잠들었다. 꽤 긴 시간을 버스로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번 여행에 탔던 전세 버스는 여지껏 탄 버스 중에 가장 편했다. 한국의 공항버스나 조금 그 이상으로 상상하면 엇비슷하다.

사실 약 2년 전에 혼자 쿠알라룸푸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땐 현지에서 사귀어 이집트 친구와 차이나타

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호텔에서 편하게 쉬 수 있었다. 둘째 날까진 잘 몰랐지만 보통 호텔에는 수영장까지 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새벽에 호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33층에 수영장이 있었다. 천장 없이 하늘만 있는 수영장은 처음 봤다. 학교 지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던 모습이였다.



<말라카 호텔 수영장>

아침 식사를 하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을 방문했다. 여기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서울대와 비슷하게 인식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도 끝없이 건물에 나무들이 나왔다. 방학이라 학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쪽에 도착해 UKM 측 교수님의 짧은 말레이시아 정치에 관한 **특강**을 듣고,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촬영 후, 작은 로비에서 점심도 함께하였다. 원래는 현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도 해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서인지 빠르게 학교 밖으로 나섰다. 이 점이 꽤 아쉬웠다.

바로 **한국 대사관**에 들러 대사님을 만나고 서기관님의 설명을 들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더불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관계를 위주로 강연을 하셨다. 여지껏 학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던 나로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꽤 교류가 많다는 것이 새로웠다. 여러 산업 교류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특히 일본 기업체와 경쟁을 하며 완공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여태 내가 모르고 있던 역사책을 들이밀어 준 느낌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과 더불어서 대사관 건물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고, 실내 교육장 만이 한국과 비슷해 익숙할 뿐이었다. 설명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향하는 대사님과 서기관님의 모습을 보니, 해외에서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꽤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뒤이어서 **코트라** 건물도 방문하였다. 코트라 직원의 취업 제도 설명을 포함해, 쿠알라룸푸르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설명도 들었다. 코트라에서 교역 뿐만이 아니라 새로 해외에 취업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꽤 많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도 새로 알 수 있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면 분명히 접속해 볼 것 같은 사이트의 주소도 메모해 두었다. 강사님들의 강연이 마치고 우리가 한 질문 중, 이곳에서 일을 오래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럽 등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두고 있던 강사의 대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과연 나도 해외에서 취직하면 이직을 당연시하게 생각할까.



<잘란알로 야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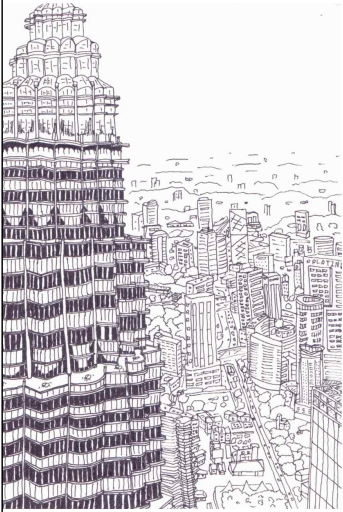
조금은 여유가 있던 셋째 날 일정이었기에 **자유 시간**을 활용하여 학우들과 야시장에 놀러갔다. 다들 하고 싶던 마사지도 받았는데, 10 명에서 단체로 마주보고 누워있으니 서로 웃기에 바빴다. 정말 가벼워진 몸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는 이것저것 거르지 않고 시켜먹었는데, 사먹은 것 전부 합쳐서 한명에 만 오천 원 정도 나왔다. 이때는 정말 친구들끼리 자유여행으로 놀러온 기분이었다. 좋은 버스도 없었고, 길을 아는 가이드도 없었다. 마냥 걷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두리안을 처음 먹어보기도 했고, 바나나 튀김인 줄 알고 샀다가 먹어보니 고구마 튀김인 적도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인 넷째 날에는 KL 시내를 구경했다. **국립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여자들은 보라색 외투에 검은 히잡을 두르고 맨발로 들어가야 했다. 3일 동안 친해져서 익숙해진 얼굴들이 히잡을 썼더니 다시 다른 사람이 됐다. 지금 길거리에 있는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또한 못 알아볼 것 같다. 다들 처음 보는 모습에 사진도 많이 찍었고, 건물도 정말 좋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특히 기억에 남던 것은 사원 내 신도들만 따로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 공간이다. 말레이시아 국립 사원인 만큼 내부 모습이 정교했다. 분위기도 바깥과 다르게 고요하고,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웅장하게 보이도록 디자인 돼있다.



<국립 이슬람 사원에서>

이 외에 실제 왕이 살고 있는 왕궁, 독립을 선언했던 **메르데카 광장**,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까지 웬만한 시내를 모두 둘러보았다. 왕궁 앞에 갔을 때, 블랙펜서의 왕궁 느낌을 크게 받았다. 말을 타고 문을 지키는 근위병도, 디즈니랜드 영화 초반에 나오는 궁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건물도 한 몫 했다. 사실 왕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왕의 존재가 어떨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 대통령이나 총리도 아닌데,



국가 원수로 한평생을 한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할지 조금 의심이 들었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웅장한 곳에서 제대로 갖추고 공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가능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보안을 위해 입구에서만 사진을 찍고 아쉽지만 메르데카 광장으로 출발했다.

이곳에서는 넓은 광장에 단체로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난다. 그냥 이쁜 광장이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하지만 버스에서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곳에서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메르데카(독립!)”를 외치며 기념하는 장소라고 한다. 저녁에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에 도착해 옥상에 올랐을 때는 해질 녘이었다. 전망대는 두 건물 사이를 잇고 있는 공중 다리와 거의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었다. 다리에서는 환한 낮이라 멀리 산들을 볼 수 있었고, 옥상에서는 불빛으로 꾸며진 도시가 보였다. 밤이라 어두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멀리 있는 불빛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낮부터 밤까지 두 가지 쿠알라룸푸르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뒤에는 세계 최대 힌두교 신전이 있는 **바투 동굴**로 향했다. 원숭이가 한참 많고 계단도 많겠거니 생각했는데,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동남아 원숭이만큼 사납지는 않은 편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양옆으로는 벽돌을 나르고 벽에 그림을 덧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현지 신자들이 벽돌 한 개 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마 공사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는 행동일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만큼은 이곳이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전이고 근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능숙하게 벽돌을 던지며 주고받는 사람들과 잠시 쉬면서 목을 축이던 아저씨들의 모습에 주변 동굴들보다 더 눈이 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하늘의 라스베가스 라고 불리는 겐팅 하이랜드에 탐방을 갔다. 한참을 올라간 끝에 산꼭대기에 정말 소도시 규모의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내부는 쇼핑몰로 되어 있었고, 1층부터 4층까지 중간이 뚫려 있어 위아래로 내다볼 수도 있었다. 카지노 입구에는 경찰들이 여권을 검사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게임을 하는 모습은 영화와 똑같았다. 나도 조금 해보았는데, 딱 넣은 돈 만큼만 다시 받았다. 처음엔 얼마나 받는지 모르고 점수만 보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호들갑을 떨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기억도 있다.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니 약속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테리막카시(=감사합니다) 하며 현지 가이드 분들과 한국인 가이드 분에게 인사를 하곤 비행기에 올랐다. 이동 시간이 많은 일정이었는에도 3박 5일보다 한참 긴 여행처럼 느껴졌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어찌다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바투동굴에서>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앞의 글 서두에 각자마다 자신의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적었다. 나는 기억하고 싶은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며 영화처럼 순간을 기억하는 걸 좋아한다. 앞에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그림을 그린 덕에, 어디에 은행이 있고 유명한 아파트가 있는지 대강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선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그릴 때마다 선명하게 이미지가 남아서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그런 풍경들보다도 그곳의 사람들이 계속 생각난다. 향을 팔던 아주머니들, 우리 짐을 들어주던 버스 아저씨, 문을 열어주던 호텔리어 아이 등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보다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어쩌면 이번에 다니면서 무의식중에 신경을 썼던 부분은 풍경보다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과거에 살았을 사람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만나며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자신만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 사람들.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에는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문화는 나와 다를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던 것 같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 해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 이것을 배웠으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문화 체험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18-1학기에서 동남아시아 입문 이라는 수업을 들어서인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이 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인종도 아닐뿐더러, ASEAN 나라마다 서로 유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들도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직전 학기에서 인접 국가 간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고루 배워서 이런 시각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본래는 국가와 문화에 대한 수업이 전공 수업만큼이나 깊이가 있을까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배운 것 같다.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수업들에 마음을 열고 수강을 해 볼 계획도 생겼다.

특히 이번 여행이 이전의 여행과 가장 달랐던 점은 다양한 체험에 있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학생의 모임이라는 특수함에 맞추어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던 가이드님이 있었고, 적절한 패키지와 자유 여행의 혼합으로 여러 가지의 음식도 맛볼 수 있었다. 정말 가족과 패키지 여행을 왔거나 혼자 여행을 왔다면, 그 두리안은 절대 입에도 안 댔을 것이다. 잊을 수가 없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현지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나마 만날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하였을 때 대사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을 줄 알았으나, 짧은 강의 후 금방 들어가신 이후에는 대사관 방문에 의아함을 갖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코트라 방문은 좋았으나, 네 명의 연사 분들이 연달아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깊은 내용의 설명을 듣지 못해 크게 기억에 남는 내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거나 중요한 교류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과 동기와 선배들이 문화체험을 한 번씩은 꼭 가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학우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녀와 보니, 함께 간 사람들이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개방적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패키지여행을 가면 구경만 하기 쉬운데, 아주대학교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출발하니 제 스스로 마음을 열기에도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단체로 어느 나라에 문화 체험을 하러 가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일정량의 준비 시간을 갖춰 떠나는 여행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많은 친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비슷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없이 혼자 가는 분은 처음에 어색함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어색했고, 살짝 걱정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첫날 저녁이 되기 전에는 서로 한 사람씩 붙잡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잠자는 사이에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움직이기에 여행의 위험에 대한 걱정도 훨씬 줄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시설과 음식에 만족했습니다. 현지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중간 중간 한식도 포함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덜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은 교육 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예요. 처음 일정을 받으면 기대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외국까지 나가서 취업이나 학업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교육 하나가 나의 앞길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면 마저 다른 한 곳이라도 더 둘러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하나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와 닿지 않고 큰 정보가 아닐지라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고 필요할 때가 생기면 처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잊고 있던 코트라 사이트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깐요. 이런 이유로 저는 다음 문화 체험 기회에도 꼭 지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서서도 말했듯이 저는 똑같은 쿠알라룸푸르에 먼저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두 번째로 와 보니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혼자, 친구들과, 가족 등과 올 수도 있겠지만, 지원

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같은 뜻을 갖고 또래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주대학교에서 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 아니면 놓쳐버릴 수 있는 시간을 학우들도 함께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